

농촌국민학교 양호실 이용에 관한 조사

순천간전논문집 제3집, 1977.

곽명순

결론

전남 승주군과 광양군에서 지역적 특성을 농촌으로 한정하여 농촌 국민학교 아동의 양호실 이용율을 조사하기 위해 학급크기 24~30학급을 갖고 있으며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4개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197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양호실 이용율을 남여별, 월별, 학년별, 요일별 및 아동들의 호소내용별로는 외상, 내과질환, 피부병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여별 이용율 조사에서는 남아가 53.45%로 여아 46.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수가 여아보다 적은 남아의 이용율이 높은 것은 의의있는 일이다.

2) 학년별 이용율은 6학년에서 다른 학년에 비해 훨씬 높은 25.83%를 나타냈으며 1학년은 11.61%로 가장 낮은 이용율을 나타냈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양호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월별 이용율에서는 6월에 26.32%로 가장 높았으며, 3월에는 22.6%를 보여 가장 적게 이용하였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봄에보다 교실밖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초여름에 양호실을 많이 이용하였다.

4) 요일별 이용율은 수요일이 18.67%로 가장 높았으며 토요일에는 13.13%로 가장 낮았다.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수업시간도 적으며 양호실도 오전중에만 개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호소내용별에 따른 이용율을 보면 내과질환에 의한 이용이 가장 많아 57.50%의 이용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외상에 의한 이용율로 36.14%였으며 피부병으로 인한 이용율을 6.3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학년 아동은 외상에 의한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학년에서는 전체적인 이용율 순위와 같이 내과질환에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냈으며, 외상, 피부병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이 없는 농촌에서의 국민학교 아동은 내과질환을 가장 많이 호소하며 외상과 함께 주요 호소내용이 되고 있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양호실 인식도 및 이용도에 관한 연구

박재경

1977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시내 국민학교 학생의 양호실 인식도와 양호실 이용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호실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 2,114명(97.87%), 모른다 46명(2.12%)이었다.

2. 양호실은 아플 때 가는 곳 2,126명(98.42%), 피곤할 때 24명(1.11%), 건강 상담하러 6명(0.27%), 모른다 4명(0.18%)이었다.

3. 학교에서 아플 때 가고 싶은 곳은 양호실 1,271명(72.73%), 집 391명(18.10%), 병원 198명(9.16%) 순서이었다.

4. 양호선생님은 친절하다. 1,978명(91.57%), 무섭다 136명(6.29%) 무답 46명(2.12%)이었다.

5. 양호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을 때는 운동회 때 765명(35.41%), 언제나 686명(31.75%), 소풍갈 때 416명(19.25%) 자유 학습의 날 293명(13.56%) 순서이었다.

6. 학교에서 급우가 아팠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은 담임선생님 1,062명(49.16%), 양호선생님 935명(43.28%) 부모님 113명(5.23%), 교장선생님 50명(2.31%) 순서이었다.

7.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택이라 생각하는 가에서는 양호선생님 1,307명(60.50%), 부모님 393명(18.19%), 교장선생님 253명(11.71%), 담임선생님 120명(5.55%) 자기 자신 87명(4.02%) 순서이었다.

8. 양호실 월별 이용 사항은 6월 1,473명(68.19%), 4월 1,107명(51.25%), 3월 870명(40.27%), 5월 849명(39.30%), 8월 684명(31.66%), 7월 538명(24.90%) 순서이었다.

9. 질병별 이용 사항은 외상 2,012명(36.44%), 복통 1,735명(31.42%), 두통 1,568명(28.40%), 비출혈 181명(3.27%), 안과질환 19명(0.34%), 귀질환 6명(0.10%) 순서이었다.

10. 월별 질병별 이용 사항은 3월 외상 312명(35.86%), 4월 복통 402명(36.31%), 5월 외상 298명(35.10%), 6월 복통 522명(35.43%), 7월 외상 211명(39.21%), 8월 외상 291(42.54%)로 가장 많았으며 월과 관계없이 안과 질환과 귀질환이 가장 적었다.

11. 학년별 이용 사항은 3학년 1,228명(22.24%), 2학년 1,100명(19.92%), 4학년 1,028명(18.61%), 5학년 971명(17.58%), 1학년 729명(13.20%), 6학년 465명(8.42%) 순서이었다.

12. 성별 질병별 이용 사항은 남학생 외상 1,302명(41.39%), 복통 851(27.05%),

두통 829명(26.35%), 비출혈 150명(4.76%), 안과질환 10명(0.31%), 귀질환 3명(0.09%) 순서이고, 여학생은 보통 884명(37.20%), 두통 739명(31.10%), 외상 710명(29.88%), 비출혈 31명(1.30%), 안과질환 9명(0.37%), 귀질환 3명(0.12%) 순서이었다.

사춘기 청소년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1977.

오 경 옥

결 론

1976년 4월 26일부터 1976년 7월 4일까지 10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정상대조군 437명, 고아군 416명, 지체부자유아군 133군, 농아아군 109명을 연구대상으로 Zung의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대상을 10~14세군을 사춘기전기, 15~18세군을 사춘기 후기로 2개 연령군과 성별로 분류하여 집단별간에 우울득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 1) 우울득점은 농아아군을 제외하고 연상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2) 우울득점은 4개군에서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
- 3) 우울득점은 고아군, 지체부자유아군 및 농아아군에서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높았다.
- 4) 비교군에서 우울득점은 고아군은 지체부자유아군보다 높았고, 농아아군은 지체부자유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5) 우울증상에 발현 빈도는 정상대조군에서 심리적 증상이 상위수준에 발현되는 반면에 우울득점이 높은 고아군 및 농아아군에서는 신체적 증상이 상위수준에 있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 국민학교 아동의 상병 및 의료이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대 간전논문집 제1집, 1977.